

“한국 현대미술 해외진출사 40년 총정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26일 ‘한국현대미술...’展 열어

또 해냈다. 국가단위 국제전과 해외전의 도록, 팸플릿, 포스터, 입장권, 당시 신문·잡지기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한국 현대미술 해외진출을 미술사 차원에서 총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정부 미술관장도, 미술사가도, 미술대학 교수도 아니다. ‘걸어다니는 미술박물관’으로 유명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56)이다.

서울 창전동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7월23일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전개와 위상’전을 연다.

한국 현대미술이 해외진출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높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한국 작가의 해외 전시를 집대성한 목록이 없는 실정에서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경향과 위상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은 “해외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전시를 통해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자료를 책으로 묶어 해외 큐레이터들에게도 소개하고, 전시 중에 국내 미술사 연구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단행본과 정기간행물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간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100여점이 선보인다. 박물관 소장자료는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 육근병·성완경씨 등 개인작가의 소장자료를 대어했다.

전시는 1958년 미국 신시내티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국제판화비엔날레부터 소개한다. 당시 이항성(1919~97), 유강열(1920~76), 정규(1923~71) 등의 작가가 참여하면서 해외 전시의 첫발을 뗐다.



제2회 파리비엔날레는 김창열, 장성순, 정창섭, 조용익 등의 작가가 참여했다.

김환기는 1963년 제7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초대받아 명예상을 수상했다. 65년 제4회 파리비엔날레에는 최만린, 이양노,

정상화, 김종학, 하종현 등이 나섰다.

“한국이 국가 단위로 처음 참가한 1961년 프랑스 파리비엔날레, 국제전 초청을 처음 받았던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일본에 한국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했던 1968년 한국현대회화전, 한국관이 처음 만들어졌던 1995년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까지 40여년 역사를 총정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12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뽑힌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도 소개된다. 가장 의미있는 전시로는 1975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다섯가지 흰색전’, 2위에는 1992년 영국 리버풀 테이트갤러리에서 열린 ‘자연과 함께’ 전시가 꼽혔다.

김 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행본, 포스터 자료만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당시 수상 작품 이미지를 영상물로 상영하고 오는 6월 3일 해외 국제전에서의 과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hyun@